

나주시 ‘공익형 재생에너지’로 연금 실현 박차

도·영암·영광·한전KDN과 협약

전국 최초 공공 유휴부지 활용

부지 임대료·수익 재원 시민 환원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에너지 상생 모델을 선도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함께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전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 사회 이익 환원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나주시는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태



나주시가 전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주)과 함께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참여·상생형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박상형 한전KDN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주차장,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 재원은 주민

참여형 투자와 한전KDN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마련한다.

시민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받고 부지를 제공한 나주시는 임대료와 남은 수익을 ‘나주 햇빛연금’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해 발전 이익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참여 지자체는 공공유휴부지 발굴 및 제공, 발전이익 공유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한전KDN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ICT 솔루션 구축을 맡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나주 햇빛연금’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환원하는 뜻깊은 상생 모델”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를 통해 나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해남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관광 명소 거듭

카트체험·사계절썰매장 인기

군민 50% 할인 혜택 등 제공

해남군이 조성한 ‘두륜산 생태힐링파크’가 가장 두 달여 만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8월 문을 연 힐링파크는 두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 두륜산 입구를 찾은 초등학교생들은 “해남에서 카트와 썰매를 탈 수 있어 너무 재밌다”며 들뜬 목소리로 체험을 즐겼다.

두륜산 케이블카 하단에 위치한 힐링파크는 길이 366m의 카트체험장과 70m 규모의 사계절 썰매장으로 구성됐다. 〈사진〉

9월부터 썰매장이 정상 운영되면서 관내 초·중학교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단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역 내 어린이 체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침체된 두륜산 관광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700여명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청장년층 관광객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힐링파크는 전문업체가 위탁운영 중이며, 나주시 ‘다도60카트체험장’ 운영 경험을 살려 SNS 홍보와 제휴할인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힐링파크는 개장 기념으로 해남군민에

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이 이용객 대상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기념해 관광객자 ‘해남까지 왔는데 어딜 가지’를 소지한 관광객에게 해남군 내 유료관광지 7곳(두륜산케이블카·포레스 트수목원·땅끝모노레일 등)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행사 및 할인 정보는 해남군 공식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공동육아 나눔터 ‘영암 새싹돌봄센터’ 개관

영암군은 16일 “지난 13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영암읍에 ‘새싹돌봄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업비 18억원이 투입된 새싹돌봄센터는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방식의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돌봄시설이 국가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을 담당할 전망이다.

개소식에는 돌봄 공동체에 참여한 부모와 아이들,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민협의회,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을 맡은 신한금융그룹 관계자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1층 공동육아나눔터와 2·3층 주민공동체 동아리실로 구성돼 돌봄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주민과 단체의 교류·활동 공간으

로 활용될 예정이다.

운영을 맡은 영암월출마을관리사회지원동 조합은 품앗이 돌봄을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군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싹돌봄센터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돌봄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군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착수

청년 의료·복지 인력 정주 지원

내년 준공 목표…총 30실 규모

진도군이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도읍 사업부지에서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금례 군의회 의장,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건립 안전지원제를 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무재해 시공을 기원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전남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추진되는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의료·복지 인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67억원으로, 도비 24억원과 군비

2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원이 투입된다.

기숙사는 지상 4층, 총 30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1세대당 32㎡ 규모의 원룸형 구조로 구성된다. 청년 간호사와 복지 종사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시설과 공용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간호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기숙사 건립을 통해 지역 보건소·요양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리고 있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진도군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인구 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의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행복한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신안군 ‘섬 맨드라미 축제’ 성료

신안군은 “중도면 병풍도 일대에서 열린 ‘2025 섬 맨드라미 축제’가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섬·바다·꽃 어울림 한마당’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병풍도를 찾아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축제 기간 병풍도의 맨드라미 정원은 붉은색, 노란색, 보라빛 등 다채로운 색상으로 물들어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특히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리는 12사도 순

례길과 병풍바위(1.3km 구간)가 꽃길과 어우러져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과 해상교통 지원으로 접근성이 개선돼 관람객들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명한 가을 하늘 아래 병풍도를 누놓는 맨드라미꽃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안만의 자연과 문화를 조화롭게 담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함평군 ‘모바일 헬스케어’ 시행

안전 임신·출산 환경 조성

함평군은 16일 “전 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현재 함평군 모바일 헬스케어에는 20대 2명, 30대 13명, 40대 16명의 가입기 여성을 비롯해 50~60대 여성 29명 등 총 60여명이 참여 중이다.

임신 전후 여성은 물론, 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5대 건강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이후 전문가의 1대1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생

활습관을

개선하며

안전한 임신

과 건강한 출

산 환경을 조성하

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 산모의 주요 질환인 임신중독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주기적인 혈압 측정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리로 산모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여성의 건강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가입기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함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 기자



목포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교육

청년 25명 대상 멘토링 등

목포상공회의소는 16일 “전날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미래내일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탐색과 역량 강화를 돕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210여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 사전직무교육에는 25명의 청년이 참여해 17일까지 3일간 총 20시간의 교육과 멘토링을 받는다. 이후 오는 20일부터는 희망

기업에 배치돼 8-12주간 인턴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MC 에너지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목포추진센터, 목포문화방송, (주)목포해상케이블카, 신안군산림조합, 씨월드고속웨더리, (주)케이씨,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등 12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정현택 회장은 “이번 직무교육이 청년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층적인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